

달고 요만한 그림자(금요집회)-천국 복음

-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 제2장. 장래에 임할 천국
-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 제4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 생명(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요 17:3).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감하고 한 목소리로 동의하는 날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은 아직도 미래에 속한 날이다.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쟁과 분열이 많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이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부분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게름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땅 위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영감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느님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불구하고 감탄한 것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영생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요(고 3:3, 3:6). 장차 올 새 세대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에서 만드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새 세대의 생명, 영광의 나라의 생명, 썩어질 몸이 변화하는 때에 있을 그 생명을 간절히 고대한다(고전 15:42-44). 그렇다면 그 날에 우리가 덧입게 될 ‘신령한 몸’은 무엇일까? 대체 어떤 몸이길래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한 것일까? 신령한 몸이란 몸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몸을 말한다. 신령한 몸은 진정으로 참 몸이며, 만질 수 있는 객관적인 몸이다. 그러나 이 몸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활력을 받고 생기가 있으며 권능을 부여받은 몸이다(고후 5:4-5). 바울은 이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엡 1:13-14). 이 기업은 완전한 생명이다. 우리의 연약한 몸이 신령한 몸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의 온전함으로 변화되는 것이다(고전 10:42-50, 고후 5:1-10, 엡 1:14).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러한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장차 그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약속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성령을 주신 것이다.

보증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면 거래 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함으로써 그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확증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

는 사실이 곧 이 계약금과 같은 말이다. 계약금을 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거래 물건을 전부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생명이요 영생인 것이다. 완전한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계약금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앞으로 올 ‘그 날’에 성령의 온전함을 체험하게 되는 그 생명의 보증금이다. 거듭남은 장차 올 새 세대의 생명의 시작이며 부분적이지만 참 생명이니이다. 이 말은 곧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장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생명이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완전하게 참여한 것은 아니고 오직 부분적이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롬 8:22-23).

장래에 임할 그 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완성되는 그 날에 모든 창조는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에서 해방될 것이다. 우리 몸은 그 어느 날 모두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넘쳐흐르는 그 생명이 인류의 모든 구조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날이 오기까지는 천국의 생명과 무관하게 사는가?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처음 익은 열매가 주어졌다.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인가?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들 가운데 처음으로 잘 익어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말한다.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 있어 해서 완전한 추수 때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것은 약속보다는 더 확실한 실제로 몸소 체험하는 것이며 또 소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임할 생명의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완전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첫 열매로 맛보게 하심으로 장차 임할 생명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셨다.

최고의 영광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장차 임할 미래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다. 미래에 속한 그 영생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교제가 이미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다. 비록 부분적인 것이지만 실제적인 것으로 임하여 있다. 그것은 진실이다. 그 날에 우리의 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변화하는 생명인,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지금 오셨다. 이러한 것들이 영생의 의미이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영생은 매일매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봉사하며 이곳에서 천국의 생명을 맛보며 교제하는 것이 크고 작은 모든 모임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제는 이와 같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하신 일인 한 세대 속에서 장래에 임할 새 세대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다. 이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려하셨다. 이것들이 약속이며 계약이며 보증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며 또한 장래에 있을 생명이요 영생이다. 이것이 천국의 복음인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곧 새 세대의 생명인 것이다.

나는 매주 파티에 간다. 하지만 화려한 드레스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근사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다. 내 마음을 늘 설레게 만드는 그 곳, 가지 없는 건널 수 없는 그 곳, 주님이 부르시는 그 곳,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이다.

그 곳에는 평화, 힘, 향기와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히 살아 있고 같은 믿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따뜻한 가족들도 있다. 회사나, 혼자있는 것과는 반을 수도 느낄 수 도 깨달을 있는 것들을 대학부라는 공동체와 예배에서 느끼고 얻는다. 난 이제 어린이고 믿음도 좋고 충분히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일상에 다시 무너지는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신다. 대학부에 날 보내셔서 그 소리처럼 빈 곳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회복하는 경험까지 덤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매주 파티에 간다. 그 곳에는 주님이 나더러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동료와 명한 신 귀한 영혼을 영혼들이 내. 내 자신도 힘들고 지쳐서 마음으로부터 퍼올 사랑이나 신령한 양식 없을 때도 있지만, 진실하고 애뜻한 주님은 진전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으로 이끄시는 진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날 처음 만나는 새가족들도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껴진다.

내면적이고 정적인 친구가 별로 없는 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14명의 친구들을

“나는 매주 파티에 간다”

‘공짜로’ 주셨다. 대학부 새가족을 섬기는 14명의 친구들. 정말 귀하고 사랑스럽다. 같은 소망,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기도하며 찬양하며 울며 웃는 대학부.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 설레고 더 좋아하고 ‘축제의 맛’을 알아가는 대학부. 이번 주에도 나는 파티에 갈 것이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복음의 잔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나의 기쁨, 나의 사랑...

김수연(대학부 새가족 팀장)

P.S. 충현교회 대학부에서는 15명의 훈련된 임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으로 새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부는 뜨거운 전도 열기로 매주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교회를 따라 회화를 찾게 된 귀한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 일꾼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후에 모이는 새가족들은 하나님의 삼계계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천국일꾼들이 양성되는 이 은혜의 전장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임 목사 중정

김성관 위임목사는 재충전을 위하여 금주부터 여름휴가를 갖는다.
휴가기간 동안 영육 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얻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HURCH REVIVAL

"(1)Hezekiah became king [when he was] twenty-five years old; and he reigned twenty-nine years in Jerusalem. And his mother's name [was] Abijah, the daughter of Zechariah. (2)And he did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according to all that his father David had done. (3)In the first year of his reign, in the first month, he opened the door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repaired them. (4)And he brought in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nd gathered them into the square on the east. (5)Then he said to them, 'Listen to me, O Levites. Consecrate yourselves now, and consecrate the house of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and carry the uncleanness out from the holy place.' (2 Chronicles 29:1-5)

Faith needs practice. Christians cannot just talk about it; they actually need to live out what they believe. Belief in Christ requires more than tearful confessions and godly intentions. Paul declared,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But if I am to live on in the flesh, this will mean fruitful labor" (Phil. 1:21-22). Salvation is all about life, not death. It is about living the Christian life. People who do not practice their faith care only for themselves. They are like "clouds without water, carried along by winds" (Jude 12). Far too many of today's church people chatter on and on about how much they love God and others, but their words are empty, like rainless clouds. Their unfaithfulness to the Lord dirties the church.

During King Ahaz's reign, Judah did not practice their faith. Their leader "did not do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2 Chron. 28:1). "Moreover, when Ahaz gathered together the utensils of the house of God, he cut the utensils of the house of God in pieces; and he closed the door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made altars for himself in every corner of Jerusalem. In every city of Judah he made high places to burn incense to other gods, and provoked the Lord, the God of his father, to anger" (2 Chron. 28:24-25). God's people worshipped other gods on top of every hill and mountain, and even under every tree. Their mixed Bible practices resulted in an unclean church that would require major revival in order to worship the Lord God properly.

All sixty-six books of the Bible are wonderful instruments of God. Whoever misuses them, whoever uses them their own way, incurs the wrath of God. Every Christian is also a beautiful instrument of God. How do you use yourself? Is it for you, your parents, or perhaps your children? You are supposed to use yourself for God. Do not use God's word or your body for your own purposes. Isaiah 40:8 reminds us, "The grass withers, the flower fades, but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Matthew 24:35 also says,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Judah destroyed God's utensils. They closed the outside temple, and even closed the inside temple of their heart because they made a different altar. They destroyed their soft hearts and filled them with pride and the blessings of this earth.

Look at 2 Chronicles 29:7. "They have also shut the doors of the porch and put out the lamps, and have not burned incense or offered burnt offerings in the holy place to the God of Israel." Do you see how terrible of a situation faith without practice causes? Judah mixed-up their worship and thus destroyed real worship. They stopped focusing on God, and consequently distorted His word. They ended up enjoying the worship of darkness. John 3:19 reminds us, "This is the judgment, that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loved the darkness rather than the Light, for their deeds were evil." Judah cried out to the trees, rocks, sun, and earthly things, not to God. God said,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I will tell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 (Jer. 33:3).

Judah claimed to be God's children, but they did not practice their faith to the Lord. 2 Chronicles 29:6 says, "For our fathers have been unfaithful and have done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our God, and have forsaken Him and turned their faces away from the dwelling place of the Lord, and have turned their backs." To believe in something other than God or to believe in something other than God's word is a terrible, terrible situation. Judah tried to hold God's law or the Bible in their left hand while holding their own will in their right hand. The outcome was sin. Jesus said, "No one, after putting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ing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Lk. 9:62). Too many Christians claim to believe in Jesus, to love Jesus, but have their hands on others' tools. We need revival. We have no other choice.

After Ahaz died, Hezekiah became king of Judah. "He did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according to all that his father David had done" (v. 2). Every individual needs to be clean. They need to decide in favor of God by practicing their faith. "In the first year of his reign, in the first month, he opened the door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repaired them" (v. 3). God's people need to come together to worship, and they need to do so rightly. They need strong doors based on Scripture. "He brought in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nd gathered them into the square on the east. Then he said to them, 'Listen to me, O Levites. Consecrate yourselves now, and consecrate the house of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vv. 4&5). God's people need to be holy inside and outside in order to worship Him. Hezekiah also said, "carry the uncleanness out from the holy place" (v. 5).

Let us open our hearts for our church. We need the Light from heaven. We need to clean this church. There are too many things of earthly importance, like reputation, fame, and respect, that dirty our church. Our entire church organization needs cleaning. We need to find the cross in every section and every corner.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word of God is the focal point everywhere. We need to throw out the bad things. "So the priests went in to the inner part of the house of the Lord to cleanse it, and every unclean thing which they found in the temple of the Lord, they brought out to the court of the house of the Lord. Then the Levites received it to carry out to the Kidron valley" (v. 16). Like Judah, we need to seriously clean up our outside and inside temple.

Proverbs 4:23 says, "Watch over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from it flow the springs of life." Dedicate your heart to the Lord. Too many Christians profess Christ with their mouth, but not their hearts. Jesus said,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dine with him, and he with Me" (Rev. 3:20). Jesus is outside. We need to open the door, open our hearts. We need the Holy Spirit to come in so that we can dwell in kingdom life. Amazing things will happen. Psalm 19:12 & 13 say, "Who can discern his errors? Acquit me of hidden faults. Also keep back Your servant from presumptuous sins; let them not rule over me; then I shall be blameless, and I shall be acquitted of great transgression."

My dear friends, we need a revival. Our church needs cleansing, not only our church but also our country and our families. The Korean family is breaking. Many of our children now go overseas for educational opportunities. Also, many husband and wives separate for job training and careers. Our divorce rate is rising. We are facing unusual situations. Whether the break-ups are good or bad, we need God. We have to open the doors of our hearts, and our church needs to open its doors to preach only the Word of God, only the gospel, and not be concerned with other things. "Will You Not Yourself revive us again, that Your people may rejoice in You?" (Psalm 85:6).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Truly become a child of God. God said, when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2 Chron 7:14). God bless you, please come home. 🙏

다음 주일 설교

교회의 부흥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라의 딸이더라”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⁵ 원년 정월에 여호와와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 광장에 모으고⁶ 제히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 하라”(대하 29:1-5)



김성관 목사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관해서 말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물을 흘리며 신앙을 고백하거나 경건한 생각을 가지는 것 그 이상입니다. 바울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내 나의 열매인즉 무엇을 가릴지는 그 나중 알지 못하도라”(골 1:21-22). 구원은 삶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시체처럼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유 12절 참조)과 같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깊이 이기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마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처럼 절대기만 있을 뿐 앞날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말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진실하지 않으므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히스기아 왕위에 있을 때, 유다는 믿음을 실천하지 않았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대하 28:1).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해하고 또 여호와와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는 신에게 분향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도를 경멸케 하였더라”(대하 28:24-25). 유다 백성들은 모든 언덕과 산꼭대기에 산당을 세워놓고, 심지어는 모든 나무 밑에서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혼란된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66권의 책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잘못 사용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자신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ის이여 40장 23절은 말합니다.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35절은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의 성전까지도 닫아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을 어떤 다른 신들이 세워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버리고 교만과 이 세상의 축복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의 끔찍한 결과

역대하 29장 7절을 보십시오. “네 성실 문을 닫으니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유다 백성은 예배를 우상 숭배와 섞어 버렸고, 그 결과 참된 예배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마음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상 숭배를 증거위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의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택한 데서 망한 것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행하여 기도하는 대신에 악무덤과 바위들, 해외 이 세상 것들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방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일은 참으로 무서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 쪽으로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좇아 살면서,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 9:62b). 오늘 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것을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을 깨뜨릴 부흥이 필요합니다.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부흥

아하스 왕이 죽은 후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대하 29:2).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원년 정월에 여호와와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3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견고한 문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과 발이 모두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 광장에 모으고 제히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 하라”(4,5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성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명성이나 인파나 존경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들이 숭배되고 있어서 우리 교회를 떠날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곳에서 오직 십자가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제사장들과 여호와와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케 하여 여호와와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와 전 뜰에 이르며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길드론 시내로 가져가더라”(16절). 오늘 우리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유다 백성처럼 교회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모두 깨끗케 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생기기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꽃피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곳 다락에 있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속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드리십시오. 성경에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12, 13절은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만됨을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상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에도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흠어져 살고 있는지요?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할 수 없이 떨어져 사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혼율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든 이처럼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깊은 건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을 다스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시 85:6).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리”(대하 7:14).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

권사 칼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신형순(권사, 3지회장)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한 2004년도 6개월을 과거로 돌리보내면서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아무 것도 내어 놓을 것이 없는 부족하고 송구하기 그지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2001년 11월 11일 주간총회에 3지회장의 이름이 발표되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 혹시 같은 이름이 아닌지하고 알아보지만 저라고 말씀하시는데 더욱 놀라고... 저같이 부족하고 믿음도 약하고 아무 경험도 없는 자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주님께 호소해 보았습니다.

2002년 첫 주일, 권사 사무실에 처음 올라가 보니 분회 회장님으로부터 모든 임원들이 다 젊으시고 책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 어찌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염려했으나 모두 좋으신 분들이어서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첫 번째 도전받은 것은 24시간 연속기도였습니다. 제게 맡겨진 244명의 권사님들의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지키는 것으로 연속기도가 잘 진행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책임을 지고 보니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사님들은 눈이 오면 미끄러워 못 나오실 때도 있음은 물론 외국에 출타하시는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기도시간은 두 시간씩이었었는데 두 시간 오셔서 두 시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모두 해서 여섯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일 힘든 시간은 밤 시간이었는데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어려움만큼 성숙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없이 순종하면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도 의논하여 잘 진행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사회에 간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큰 행사는 권사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2월이던 수련회 날짜와 암송할 잠언 광고가 나가며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잠언을 암송하실 분들은 4-5개월 동안 앉으나 서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수련회에 여러 순서가 있는데 저는 암송 순서를 진행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정해진 분량을 다 암송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시는 과정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권사님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하고 물었더니, "84년 2반이야" 하시며 주님께 웃으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암송대회에서 91세 되신 분이 1등, 82세 되신 분이 2등이었습니다.

금년 수련회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24시간 기도가 수면에 머물러 2004년부터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께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채워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온 교회 중 각이 협력한 삼겹줄 기도는 총현교회와 이루고자 하는 세계선교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단기선교와 열방의 영혼을 건지는 큰 일을 잘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권사님들도 금년에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분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회를 잘 감당하고 있으며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은혜롭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길요리 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권사님들을 정경같이 언단하시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권사님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메시지

첫 것과 둘째 것
(히 10:9-18)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1절). 성경은 단호하게 말한다. 불분명하지 않다. 율법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율법은 결코 주님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어디 그림인가? "형조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4절). 그렇다. 율법에 속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더 중요한 진리를 선포한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5절).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7절). 무슨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인가? 9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옵는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니라"(9절b). 율법에 속한 모든 의식과 회생을 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이다. 이제는 회생과 의식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 진리를 믿는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과 기복을 중요시하며 그 가운데서 갈등과 변명을 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찬양을 쉬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사라져야 하는 것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또한 새롭게 드러나는 것들도 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물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썩어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딤후 1:10).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도덕이나 양심 같이 첫 것으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애쓴다(딤후 1:6,7).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체 무엇 때문에 썩어질 것에 그토록 집착한단 말인가! 첫 것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의 인격, 도덕, 신앙의 경표는 사라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전 15:22). 거룩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히 10:10,14).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히 4:14).

역사적인 면

성경에는 죄의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옛 것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일을 행하셨고 하늘에 오르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과거'를 떠나라 말씀하신다. 주님이 장차 주실 땅과 하늘은 '새 땅', '새 하늘'이다(겔 21:1, 벰후 3:13). 옛 언약은 옛 시대에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옛 것을 버리자. 옛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히 10:19).

개인적인 면

이제 우리 자신의 의는 패해져야 한다. 우리 자신의 경험도, 지식도, 강함도 모두 패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를 어둠과 사망으로 이끌어가 뿐이다. 예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를 생각해 보라. 그들 중 다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여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다(고전 10:3,5). 첫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처럼 멸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갈 3:9).

소망적인 면

첫 것을 버리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순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첫 것을 버림으로써만 우리는 참 소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살리는 영'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만 한다(고전 15:45,46).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도, 아무리 오래 교회 봉사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다(고전 15:17). 그러므로 첫 것은 없애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에서만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게 된다. 새 언약의 모든 축복을 입게 된다.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맡기자.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다.

에바다부 단기선교팀

손짓으로 전한 십자가 사랑

♥ 에바다부는 3년 전부터 같은 지역으로 단기선교를 갔다. 단기선교를 처음 할 땐 현지수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한국에는 없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몇 차례 단기선교를 가면서 팀원들이 그 지역의 수화를 많이 배워 이제는 500년대 정도가 들리긴 그 지역의 수화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농아인이 농아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왔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워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은 농아인이기에 더욱 마음을 다해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아인들은 집중력도 강하고 또 상대방의 손동작을 몇 번 보면 금방 외워서 말씀에 대해 기쁘게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 우리 팀원은 12명뿐이라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인원은 100명도 넘어 1명이 10명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우리 팀원들이 그들이 하는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대견해 더욱 주님께 감사했다. (조종환 정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부리면서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가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답답하고 그 할머니가 정말 불쌍해 다시 복음을 전했다. 그 할머니처럼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정명미)

♥ 그곳에서 남편은 시각 장애인이고 아내는 청각 장애인 가족을 만났다. 또 다른 가족들도 여러 가지 장애를 함께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장애인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고 전했더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며 웃던 그들의 모습이 생각났다. (김희정)

♥ 일반인들과 단기선교를 가본 적이 있다. 그때는 말씀을 전할 수 없어 옆에서 돕는 사역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 내가 수화를 늦게 배워, 수화가 서투르지만 나의 부족한 손짓에도 '아멘'으로 화답해주던 그 나라의 한 언니가 있었다. 그 언니는 예수님을 믿고는 싶지만 수화통역을 해주는 교회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 언니에게 성경을 읽음으로써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격려했었는데, 지금도 그 언니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수화통역이 있는 교회가 빨리 생기길 기도한다. (민경주)

♥ 우리가 사역을 시작한 날은 월요일이었었는데 그 날이 그 나라 국경일이라서 휴일이었다. 우리는 걱정스런 가운데 농아인팀회를 찾아가었다. 131킬로미터라는 먼 길을 달려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아인들이 우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주님의 백성을 예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했다. 현지수화로 준비한 성경을 공언하고 찬송을 하면서 능숙하던 장애인 사도들의 눈과 모습을 열심히 보면서 에수를 전했다. 낯선 외국인인 우리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따뜻해 주님의 이 말씀이 기억났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이 너희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마 10:11-12).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잘 자라나길 기도한다. (이계옥 집사)

♥ 농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확 닫혀 있었지만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리라 믿는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교지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리다. (주영희 집사)

♥ 며칠 전에 에바다부 제2차 단기선교팀이 그 지역으로 떠났다. 그 나라 농아인 협회에서 우리가 지난번 갔던 지역과는 다른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해주기로 되어 있다. 이번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주의 복음만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권철집사)

♥ 우연히 숙소의 방 앞에서 만난 농아인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다. 할머니께 지금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19일(화)-7월 28일(수)	대학부 23	이상혜	7월 20일(화)-7월 29일(목)	6교구 7지역	안상직	7월 23일(금)-7월 31일(목)	5교구 3지역	김종훈	7월 22일(화)-7월 30일(금)	17교구 1지역	송영준
7월 19일(화)-7월 31일(수)	1교구 7지역	양현민	7월 20일(화)-7월 30일(금)	3교구 1지역	이근우	7월 21일(수)-7월 30일(금)	6교구 5지역	이세경	7월 22일(화)-7월 31일(목)	17교구 2지역	권병철
7월 20일(화)-7월 28일(수)	3교구 7지역	최하하	7월 20일(화)-7월 31일(목)	2교구 10지역	강두형	7월 21일(수)-7월 31일(목)	14교구 6지역	김관수			
7월 20일(화)-7월 29일(목)	대학부 24	김현철	7월 20일(화)-7월 31일(목)	대학부 26	안창익	7월 22일(화)-7월 30일(금)	9교구 1지역	동병윤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8월 2일(화)-8월 10일(화)	8교구 6지역	남용승	8월 4일(수)-8월 12일(목)	대학부 38	윤종국
8월 2일(화)-8월 10일(화)	대학부 30	김은심	8월 4일(수)-8월 12일(목)	대학부 33	박석두
8월 2일(화)-8월 10일(화)	대학부 31	이영숙	8월 4일(수)-8월 13일(금)	대학부 39	권오준
8월 2일(화)-8월 11일(수)	대학부 32	조영구	8월 4일(수)-8월 13일(금)	대학부 37	이상돈
8월 2일(화)-8월 13일(금)	1교구 6지역	김대용	8월 4일(수)-8월 14일(목)	14교구 3지역	나승은
8월 3일(화)-8월 11일(수)	고등부 1	홍원식	8월 4일(수)-8월 14일(목)	고등부 3	이성복
8월 3일(화)-8월 11일(수)	고등부 2	함철주	8월 4일(수)-8월 14일(목)	고등부 4	최재진
8월 3일(화)-8월 11일(수)	14교구 5지역	박종훈	8월 4일(수)-8월 12일(목)	대학부 35	김윤환
8월 3일(화)-8월 11일(수)	16교구 7지역	양병진	8월 4일(수)-8월 12일(목)	대학부 36	윤병식
8월 3일(화)-8월 12일(목)	1교구 3지역	구원식	8월 5일(목)-8월 12일(목)	9교구 4지역	이성복
8월 3일(화)-8월 12일(목)	2교구 5지역	박창식	8월 5일(목)-8월 12일(목)	9교구 6지역	김민태
8월 3일(화)-8월 12일(목)	5교구 4지역	정태동	8월 5일(목)-8월 12일(목)	9교구 9지역	이명희
8월 3일(화)-8월 12일(목)	8교구 1지역	김종선	8월 5일(목)-8월 12일(목)	13교구 3지역	권영주
8월 3일(화)-8월 12일(목)	10교구 3지역	김영록	8월 6일(금)-8월 13일(금)	청년(1)5	임무현
8월 3일(화)-8월 13일(금)	11교구 5지역	박홍운	8월 6일(금)-8월 14일(목)	4교구 1지역	이성식
8월 3일(화)-8월 12일(목)	대학부 34	하형철	8월 6일(금)-8월 14일(목)	11교구 2지역	김철환

◆ 이번 주 도착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26일(일)-8월 3일(화)	10교구 6지역	김연호	7월 28일(수)-8월 6일(금)	12교구 6지역	이성선
7월 26일(일)-8월 4일(수)	대학부 27	엄복삼	7월 28일(수)-8월 7일(목)	12교구 7지역	이영선
7월 26일(일)-8월 4일(수)	6교구 4지역	김선서	7월 28일(수)-8월 6일(금)	4교구 9지역	신선길
7월 26일(일)-8월 3일(화)	17교구 6지역	장선진	7월 28일(수)-8월 6일(금)	8교구 2지역	장석운
7월 26일(일)-8월 4일(수)	15교구 2지역	강석화	7월 28일(수)-8월 6일(금)	15교구 2지역	김종희
7월 26일(일)-8월 4일(수)	17교구 9지역	안호복	7월 28일(수)-8월 7일(목)	4교구 2지역	오순도
7월 26일(일)-8월 5일(목)	6교구 1지역	박강식	7월 29일(목)-8월 5일(목)	1교구 1지역	이보신
7월 27일(화)-8월 4일(수)	7교구 3지역	임영식	7월 29일(목)-8월 5일(목)	1교구 2지역	김신국
7월 27일(화)-8월 4일(수)	4교구 8지역	김현태	7월 29일(목)-8월 5일(목)	대학부 28	이신동
7월 27일(화)-8월 4일(수)	7교구 5지역	전계식	7월 29일(목)-8월 5일(목)	18교구 5지역	이흥천
7월 27일(화)-8월 5일(목)	에바다부 2	조종환	7월 29일(목)-8월 7일(목)	16교구 2지역	한준봉
7월 27일(화)-8월 5일(목)	4교구 10지역	류기영	7월 29일(목)-8월 7일(목)	14교구 추가	김갑윤
7월 27일(화)-8월 5일(목)	3교구 4지역	김성호	7월 30일(금)-8월 6일(금)	청년(1)3	최지운
7월 27일(화)-8월 5일(목)	3교구 5지역	이정재	7월 30일(금)-8월 7일(목)	2교구 3지역	구재원
7월 27일(화)-8월 5일(목)	8교구 2지역	추병창	7월 29일(목)-8월 6일(금)	청년(2)3	이기욱
7월 27일(화)-8월 5일(목)	7교구 1지역	박국영	7월 30일(금)-8월 9일(월)	대학부 29	윤은선
7월 28일(수)-8월 4일(수)	청년(1)2	전종철	7월 31일(목)-8월 7일(목)	청년(1)4	이창호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골 4:3a)

충현장학생 간증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많은 나이에,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장학금을 신청해보라고 권유했었다. 그러나 난 대학 2학년이 되도록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학금을 신청하면 순수하게 봉사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 흐리고 꼭 장학금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다.

2학년을 마칠 무렵 집안에 큰 어려움이 몰려 왔다. 어머니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남동생의 결혼을 서둘러야 했다. 나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그 동안 해 오던 아프리카와 학업을 잠시 그만두어야 했다. 그래서 수입은 줄면서 지출은 크게 늘어나는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 때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던 성도 한 분이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아 우리 가정에 주셨다고 했다. 남동생과 나는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액수가 너무 컸던 만큼, 우리 마음에 커다란 짐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돈을 주겠다고 한 사람의 말도 순수하게 믿지 못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서 쓰셨다. 그 돈 덕분에 남동생은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병간호를 무사히 끝낼 수가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깨달은 것이 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고 나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다. 내가 무언가를 해 보여 하고 있었다. 꼭 내 손을 통해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장학금도 도움이 손길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다. 내가 노력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그 복잡한 일들이 끝나고 복학해서 몇 वर्ष만은 없이 장학금을 신청했다. 장학금을 비롯한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장학생으로서 필히 참석해야 하는 금요집회와 주일 찬양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의 말씀은 기존의 나의 사고를 모두 깨뜨렸고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니 말씀이 내 삶을 움직였다. 이전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던 것들이 깨달아졌고, 오해했던 말씀들도 수정되어 갔다.

특히 금요집회에서 집중적으로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으며 나는 가슴 저리는 눈물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고 또한 '천국복음'은 나에게 아주 뚜렷하고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 주었다. 기대하거만 보였던 세상이 모두 거짓으로 꾸며졌을 뿐이며 세상이 이미 이 기시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 아래서 그것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함을 보았다. 동시에 그러한 거짓된 세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힘이 또한 얼마나 강한지도 알았다.

이제 영의 진로로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의 5대 목표가 얼마나 귀한 주께들이기를 알게 되었고 그 중 하나로 선행하고 있는 천국일꾼 양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크게 개입하고 계신 일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강한 헌금을 내는 성도들의 손길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나도 다른 장학생처럼 천국일꾼의 일원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악한 것밖에 나올 수 없는 인간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



권에스대(천년1, 장학생)

천년1부 수평회로 다녀오시

거듭난 천국 일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친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딤후 2:3-4).

수련회 두 번째날 설교 본문 말씀의 일부이다. 그 날 설교는 '천국 일꾼'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를 받은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뒤, 신앙성숙이란 내가 얼마나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보고, 그 분의 신실한 뜻에 순종하려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신앙의 대상뿐만 아니라 신앙의 주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야 하는지 납득이 가게 했다.

단 위에서는 또 하나님의 군사는 개인적인 삶과 자기 요구가 배제되는 삶을 살면서 남보다 사람의 훈련을 하여야 한다고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훈련이란 말의 궁극적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참 내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였다. 주중에 예배를 드리러다가도 막상 예배드리기 전에 너무 피곤하거나,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계획을 바꾸고는 했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지도 몰랐고, 그 유혹을 이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큰 기쁨이 있다는 것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할 수 없고, 전도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늘 나의 신앙만 유지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려했던 것도 부끄러웠다.

그 분께 지속적으로 가까이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 못하다면, 우리는 방탕함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다. 사랑하고 섬기며 성숙하게 자라가자 한다면 탕자같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이 한 순간에 받은 은혜들로 신앙의 깊이를 가능하게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루라도 훈련에 임하지 않으면, 실력과 감각을 잃어버리는 운동선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다. 그분 앞에서 보잘 것 없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오늘도 그분 앞에서 참 부끄럽게 살고 있다. '얼마나 다듬어져야 내 눈 앞에 오르지 그 분밖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도 뜻을 내는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려본다.



이정은(천년1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런 것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던가요? 어렸을 때부터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너무 의무적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언제나 무엇을 기도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 거라고, 외모가 아름다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제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몇 개월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왜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종종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웠던 질문의 답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전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세상적인 것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질문 깨닫게 해주신 구원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의 이렇게 깨달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대예배를 드리고 다시 믿음을 얻고는 합니다. 주님께 진심어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또 성령 충만하셔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역시 큰 힘을 얻고는 하니까요. 그리고는 주님께 찬양 드릴 때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기쁨이 느껴지는 것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신다는 큰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니킴을 받으면서 언제나부터인가 항상 저를 위하여 했던 기도나 이제는 주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시 기도합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작은 존재인 저를 구원 해주시고 행복함, 기쁨, 슬픔, 고통을 느끼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언제나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김명일(중등2부)

교회탐방 새가족 등록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큰 기쁨

주일이 되면 모든 부서가 다 바빠졌지만, 요즈음 특별히 바쁜 부서가 있다. 본당 202호에 위치하고 있는 새가족등록실이다. 그곳에서 매주일 새가족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일꾼들을 만나보았다.

1. 새가족 등록실의 사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새가족 등록실에서는 크게 등록 작업과 통신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시키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각 교구에 보내는 일과 새가족 양육부에 참석할 수 없는 새가족들에게 통신교육자료를 발송하고 답지를 받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성호 장로, 부장)

"연례 17명의 일꾼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1부예배 후부터 찬양예배 때까지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수요일에도 1, 2부 예배 전후로 해서 새가족 등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금요일과 전후에도 등록하러 오시는 새가족들이 있지요. 물론 평일에 등록하시는 새가족의 경우, 주일 출석을 전제로 하고 등록을 하지요." (이성호 장로)

"등록작업 못지않게 힘든 일이 통신교육입니다. 통신교육은 새가족양육부의 교육 내용을 통신으로 하는 것인데, 개인마다 진도가 달라서 일일이 체크하여 정확하게 발송하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돼거든요. 지금은 한 주에 150통씩 발송하고 있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통신교육을 받고 계신 새가족들은 주일에 답지를 저희 등록실에 제출하시지요." (김남희 집사)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있을 뿐이니라 (요한 1:9, 14장 6절)

3. 새가족 등록실에서 일하면서 특별히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새가족 환영》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피켓을 들고 본당 로비에서 기다리면, 처음에는 머쓱해서 머뭇거리며 계시다가 저렇게 다가가 등록을 하고 싶다는 새가족들을 만날 때, 그 때 느끼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큼니다." (남영순 집사)

"가끔씩 저를 통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찾아와 반갑게 인사하실 때,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이영숙 권사)

"통신교육을 받으시는 새가족들이 통신교육으로 공부한 내용을 답지에 적어서 주일마다 빠짐없이 가져와 제출하실 때 그분들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기쁩니다." (김남희 집사)

4. 혹시 있을 수 없는 새가족이 있다면...



"집이 부건인 어떤 재매가 언니의 권유를 듣고 온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 주일3부예배에 참석하여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은혜롭고 기뻐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 예배 후에 가보면 꼭 늦게까지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디. 그 런 새가족들을 보는 것저런 큰 기쁨은 없을 것 입니." (남영순 집사)

5. 새가족 인도자들이 등록실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에티켓이 있다면...

"등록실에 새가족을 인도하여 오신 성도님께서는 저희들이 새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여 새가족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애중으시면 좋겠습니. 가끔 열심이 지나쳐서 새가족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인도자가 직접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좋지 않은 것 같습니." (강유원 집사)

"새가족들과 관련하여 원적이 정어져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 그리고 그 원칙을 따라야 모든 일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이고요. 일회용 등록이 아니라 정말 충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새가족들을 인도해 주시고 등록 후에도 꾸준히 돌봐 주셨으면 합니." (이영숙 권사)

인턴부를 하고 있는 중에도 새가족등록실의 상황은 계속 바르게 돌아갔다. 등록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속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새가족에게 대한 남다른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신 귀한 일꾼들. 새가족등록실의 일꾼들처럼 충연의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돌보며 섬겨야겠다.

(종리/편집실)

이성호 장로
환영

"대부분의 새가족들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요. 모든 것이 낯설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등록실 일꾼들이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겠지요.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합니다." (김남희 집사, 부지도)

"새가족의 주사와 역력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구 교역자들이 심방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요. 이런 점에서 인도자들께서 새가족을 등록시킬 때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숙 권사)

"봉사로 중요하지만 새가족을 등록시키고 이후에 잘 돌봐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충언교도 안에서 뿌리내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만 시켜 놓고 무다닥 봉사부서로 가시는 성도들을 뵈는 참 마음이 아픁니다." (김남희 집사)

다음 주일 찬송

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다음 주일 찬송 '교회의 참된 터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이 닦아 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특별히 1절과 2,3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목상해보자.

1절: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며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중혼에 감사하여 찬송해야 한다.

2,3절: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한 믿은 안에서 같은 피와 실을 먹으며 소망 중에 사는 생명의 백성으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라는 소망을 갖고 찬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귀한 보배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이에 교회의 참된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자. 또 저 영원한 본향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 찬송을 목상하여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자.

(찬양위원회)

함께 하는 아들

김해자 (집사, 8교구)

김해자 집사님은 간이 점점 큰어지고 위장, 비장, 식도의 모세관 등이 약화되어 7월 초에 이 지면을 통해 기도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구토증으로 인해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는데, 기도제목을 나눈 이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계속 설거지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2205	임미경	19 대학부	이병철(12)	2232	박현숙	11 청년부	이영숙(1)	2259	한성일	19 청년부	김성수(16)
2206	김은희	15 청년부	최정현(12)	2233	서승훈	19 고등부	박현아(2)	2260	나종희	7 청년부	박유진(18)
2207	조승규	19 대학부	이윤리(1)	2234	최보은	19 대학부	전해숙(2)	2261	김광근	7 청년부	홍은진(7)
2208	송은아	19 대학부	이영철(15)	2235	류기연	19 청년부	류기석(18)	2262	최지영	19 청년부	조윤하(16)
2209	송금희	15 청년부	민병희(17)	2236	박지은	19 고등부	유규리(19)	2263	차지수	19 대학부	이윤철(1)
2210	김민규	19 대학부	김정우(19)	2237	김종훈	19 대학부	김정민(1)	2264	이준호	19 청년부	최정현(16)
2211	권현희	19 대학부	김재희(1)	2238	윤영자	19 고등부	윤영자(14)	2265	이민근	14 청년부	박석현(18)
2212	김봉훈	19 대학부	김재희(18)	2239	이승민	11 청년부	유수정(1)	2266	조찬근	19 외선부	윤신미(14)
2213	서경준	19 고등부	김재희(18)	2240	김지현	19 청년부	박익두(14)	2267	박지은	7 청년부	이민희(16)
2214	이희정	19 대학부	김재희(1)	2241	정종식	19 청년부	김동철(1)	2268	김종수	13 청년부	박종규(1)
2215	김진성	14 청년부	김재희(18)	2242	전준근	19 청년부	김성훈(1)	2269	홍준한	19 청년부	김정현(16)
2216	김선희	19 대학부	조정현(12)	2243	신재민	13 청년부	정창자(1)	2270	채인	19 외선부	최재현(18)
2217	이명경	6 청년부	김재희(18)	2244	박나나	11 청년부	홍창자(1)	2271	김보선	19 고등부	정순옥(1)
2218	이형철	19 고등부	김재희(18)	2245	김현두	19 청년부	이정민(1)	2272	김유진	19 청년부	김정현(13)
2219	김진우	19 대학부	조희(1)	2246	전진우	11 청년부	유정자(18)	2273	김민정	19 청년부	김정현(13)
2220	신병철	19 대학부	임재희(1)	2247	이아식	19 대학부	오승균(1)	2274	김민정	19 청년부	김정현(13)
2221	이성호	6 청년부	김재희(18)	2248	김문수	19 청년부	김현진(1)	2275	권미희	19 청년부	김정현(13)
2222	김일준	19 청년부	정영희(16)	2249	이영환	19 고등부	이종철(18)	2276	이현진	19 대학부	김정현(13)
2223	김준우	15 청년부	노영희(1)	2250	최희자	19 청년부	김현우(18)	2277	김민정	16 청년부	구지현(1)
2224	김유희	14 청년부	김남희(14)	2251	신혜림	19 고등부	조지현(1)	2278	한현진	19 고등부	최재현(18)
2225	이영아	19 대학부	이영철(18)	2252	한은	19 외선부	김성도(1)	2279	이영은	19 대학부	송재현(19)
2226	최희정	19 청년부	김정현(18)	2253	주영진	19 청년부	윤수정(18)	2280	송준한	19 대학부	이성현(1)
2227	마성희	19 고등부	송영희(12)	2254	이희진	2 청년부	최희정(1)	2281	김정현	19 대학부	박유진(18)
2228	한혜림	19 대학부	김재희(18)	2255	안영하	19 대학부	유진하(18)	2282	김성일	19 대학부	김민정(1)
2229	최희준	19 대학부	오영철(1)	2256	이윤선	19 청년부	유승환(1)	2283	김정현	19 청년부	박민준(1)
2230	이아름	19 대학부	이영철(18)	2257	정두문	19 청년부	한정재(1)	2284	최정현	19 대학부	조은하(1)
2231	연성훈	19 고등부	김재희(1)	2258	윤준근	19 외선부	유정재(1)				

※ 교회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1지회 월례회
일시: 4월(수) 9시 30분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2. 안수집사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교육관 201호
3. 경향교회 월례회
일시: 13일(금) 18:00
장소: 본당 112호

발세

1. 이명숙 타교군사 강령교회 집사의 장모, 황종임 권사의 모친, 6교구 방구덕역/ 22일 별세, 24일 장례
2. 서열남 씨 김형우 집사의 모친, 김종우 집사의 시모, 15교구/ 23일 별세, 25일 장례
3. 최순곤 집사 박근 성도의 모친, 장봉우 집사의 시모, 3교구 대치5구역/ 23일 별세, 30일 장례
4. 오우근 성도 장호희 성도의 남편, 오우일 집사의 동생, 윤정희 권사의 사동생, 12교구 상산구역/ 25일 별세, 27일 장례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원로목사 1차량 기사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세례교인
2. 지역
자립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등장형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3. 서류 제출처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 2004년도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 전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7월 첫 주~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4년 1월~6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 (제교육관 6층)
 4. 준비사항: 시산표 2부(2004년 1월~6월), 금전납부, 원장, 영수증철

◆ 2004년도 감사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1. 감사기간: 7월 첫 주~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감사대상: 전도위원회를 제외한 교회 각 부서
3. 대상기간: 2004년 2월~6월
4. 감사장소: 전도위원회실 (제교육관 302호)

◆ 2004년도 하반기 수교회설 개강

1. 교육기간: 9월 12일~12월 26일
2. 교육시간: 매주일 오후 3:15~4:30
3. 교육과정: 초급, 중급, 고급, 통역
4. 교육장소 및 접수처: 교육관 207호 (예배대부)

2004년도 제4차 학습세션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제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제자	장소
8월 8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괴종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장 홍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론 (김용진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이희의 목사)	교육관 304호		
8월 15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임원덕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란 (하종철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제자 (정진희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본 답	교구별 장소	본 답	교구별 장소		
8월 22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션식(지역 찬양대,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일일합람	유 아 세션식	(오후 3시, 갈릴렙)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답당

	2(월)	3(화)	4(수)	5(목)	6(금)	7(토)	8(주일)
설교자/지도자	정진호/안석현	이성진/권병철	이창수/박종현	김용덕/장영현	안치원/이인영	윤수일/김정연	김영호/조옥자

예배담당 안내 (8/4~8/8)

날짜	예배	예배 전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8/4 수요일	수요일		김영훈 이종철	원치않는 부끄러움(은 1:1-3) 정진호 목사 유월절(출 12:1-14) 조국찬 목사
8/5 금요일	금요일	태너 이병진/소프라노 김희숙/목관주	이종철	이대목 목사
8/8 주일 I	주일 I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위/마이클런 경언회(말렘우 아 오스트레)	양재철 한용철	교회의 부흥(대하 29:1-5) 김준희 목사
8/8 주일 II	주일 II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위/마이클런 경언회(말렘우 아 오스트레)	이종대 남상우	교회의 부흥(대하 29:1-5) 김교성 목사
8/8 주일 III	주일 III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위/마이클런 경언회(말렘우 아 오스트레)	이성진 최유덕	교회의 부흥(대하 29:1-5) 하종철 목사
8/8 주일 IV	주일 IV	교회의 찬양팀 태너 이병진, 소프라노 김희숙, 목관주	이희서 황이만	교회의 부흥(대하 29:1-5) 최종철 목사
8/8 주일 V	주일 V	교회의 찬양팀 태너 이병진, 소프라노 김희숙, 목관주	정현민 김광국	이 땅의 구주(사 69:1-3) 유병희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국기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1.오전 11:00 2.오후 7:3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장 소
회중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금요일집회	오후 11:00	본당 앞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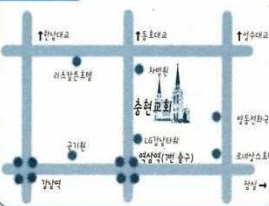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 소 부	오전 10:5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5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50	교육관 507호
중 등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오전 4: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8월 충현 기도회

1.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며, 말씀에 증거하시릴 때에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예배 때마다 영세 전투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당당히 선포되게 하소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얽히어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3.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4.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5.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6. 십자가 외에 없드리는 거듭난 천국일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성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이석기, 류병희
 - 이종철, 김영훈, 이국진, 김교성, 안창덕
 - 방종영, 안광영, 정진호, 김준희, 고광현
 - 권완중, 김진환, 김성주, 장 훈, 임원덕
 - 이희서, 최종철, 하종철, 이대목, 이복순
 - 정충신, 양재철, 이성진, 조국찬, 최정규
 -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윤수일
- 남전도사 유호남 (목사)**
- 여전도사**
- 정현희, 신동주, 윤인숙, 현영준, 김민식
 -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대훈, 김정연
 - 조옥자, 강덕철, 장재호, 최문실, 전은희
 - 김영순, 김장자, 이숙경, 김정희, 이복순
 - 류진희, 이영희
- 찬양감독 강일규**
- 찬양지휘자 서준성**
- 찬양팀장 김소연**
- 합선교사 하효성 (악보)**